"상생연대로 남부권 경제시대 열자"

강운태 시장-김두관 경남지사 교차특강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 촉구 공동성명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4일 각각 경남도청과 광주시청에서 교차특강을 갖고 남부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남·남(南·南) 상생연대 시대'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공무원 대상 특강을 갖고 "광주와 경남이 상생협력의 파트너가 돼 번영의 남부권 경제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1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광주,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은 호남과 경남의 '남·남 상생연대'를 통해 경제민주화벨트, 국가균형발전벨트, 남북통일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특히 지금의 2할 자치(재정), 3할 자치(사무) 수준을 5할 자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제정이 필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호남과 영남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전국 4대 간선철도망 중 유일한 단선구간인 경전선 '광주~순천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과 항공노선 부활을 제시했으며 광주·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구성도 제안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 시대정신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소중한 계기가 된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민선 5기 이후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시정을 높이 평가하고 "광주와 경남이 연대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와 경남의 중간 지점인 광양시 한 음식점에서 만나 오찬간담회를 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일괄매각 방안을 철회하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할 것"과 "두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날 성명은 지방은행 가운데 3번째와 4번째로 큰 우량은행으로 발돋움한 두 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끼워 일괄매각하는 것을 우려하는 광주시와 전남·경남도 7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감사원, 신안 건설 비리 공무원 파면 요구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을 받아 챙긴 신안군청 공무원 등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청 공무원 A씨는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공사업체 임원들에게 금품을 요구, 2개 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도 부당하게 올려줬다. 감사원은 A씨를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안군수를 상대로 A씨의 파면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요구했다.

신안군의 B 면장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비 16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1억9000여만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 적발됐다.

또 무안군 공무원 C씨 등은 자격이 없는 한 복지회와 24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줘 감사에 걸렸다.

한편 감사원의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 나주시의 투자유치업무 담당자 D씨는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례보다 높은 가격의 자문료를 지급해 12억5000만원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D씨는 자문료를 올려준 대가로 계약업체로부터 300만을 받아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

민주통합당 오늘 국회서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

민주통합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서울·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9개 시·도의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0~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재정 확보 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朴 지사 "여수 경도 섬 개발 성공모델로 키울 것"

박준영 전남지사가 14일 "여수 경도를 섬 개발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개발공사가 조성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22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으로서는 어업도 버려서는 안되고 관광 개발도 놓칠 수 없는 산업"이라면서 "해양관광단지 개발의 경우 적은 투자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 국동항에서 500m 떨어진 경도는 1단계 사업으로 27홀 골프장, 콘도 100실, 오토캠핑장, 해양친수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 중 지난 2일 개장한 경도 콘도미니엄은 총 100실 규모로 4가지 타입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풀장과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 세미나실이 구비돼 대규모 단체행사가 가능하며 1층에 위치한 식당은 남도의 식도락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 나선 한영대 임채욱 교수와 제자들

"여수의 친절과 미소 세계에 알릴게요"

"친절과 미소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스승과 제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환승주차장에서 출발한 순환버스가 멈춘 오동도 인근에서는 여수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임채욱 교수와 그에게 자원봉사 강의를 듣는 학생 130여명이 박람회장을 누비며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14일 여수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임채욱 교수(왼쪽 두번째)와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곳에는 환승주차장과 여수 도심에 마련된 임시주차장의 종점이기 때문에 차량과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 임 교수와 학생들은 주변 차량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길을 묻는 관람객들의 안내를 맡고 있다. 순환버스를 이용한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박람회 관계자들이 이들인 셈이다.

임 교수는 "자원봉사는 어차피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강의만 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 운영을 돕는 게 더 큰 가르침이라는 생각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와 학생들이 손발을 맞추다 보니,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일처리도 빠르고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또 매일 임 교수는 자원봉사를 마친 뒤 학생들과 관람객 동선과 원활한 차량 이동 등을 논의해 다음날 봉사 활동에 참고하고 있다.

1학년 오은아씨는 "책에는 나오지 않는 자원봉사의 많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돕는다는 자부심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최대 1082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여수시 등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93일 박람회 기간 동안 일하게 될 자원봉사자들은 총 1만3000명이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 현장교육을 이수했고, 박람회장 안팎 44곳에서 관람객을 돕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대통령 "여수, 세계 최고 관광지로 거듭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캐나다 밴쿠버가 1986년 엑스포 이후 세계적 도시로 성장했듯이 여수와 남해안 또한 세계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90차 라디오연설에서 "엑스포같이 큰 국제 행사가 인구 30만 지방도시 여수에서 열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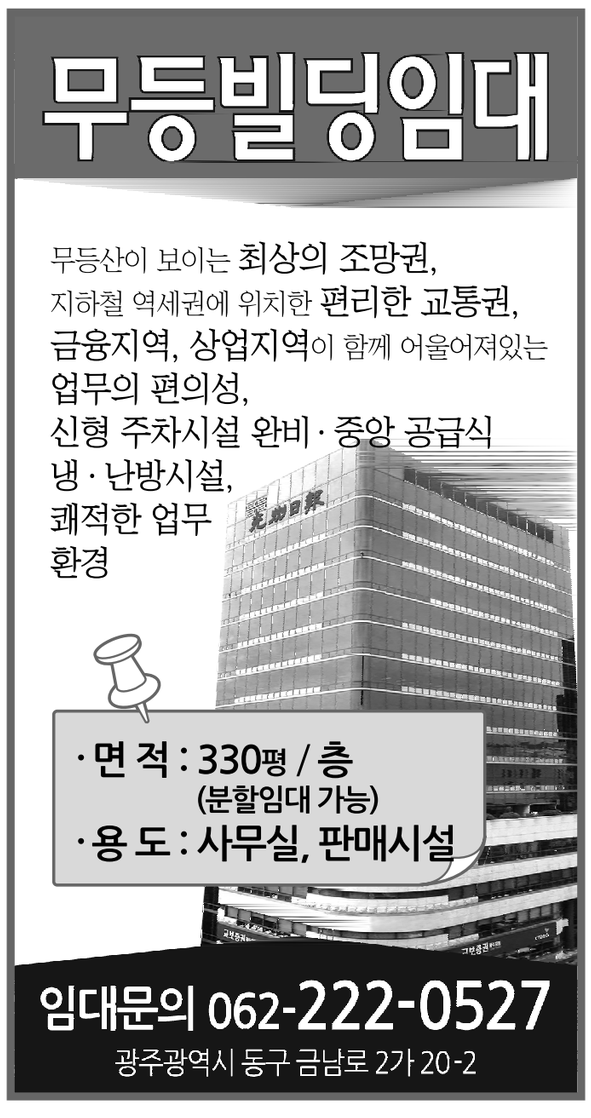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또 "엑스포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7000억 원, 고용창출도 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1000만 명이 찾게 될 이번 엑스포가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수 엑스포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린(Green) 엑스포"라면서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어류가 남획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처하자는 뜻에서 여수엑스포는 사상 처음으로 '여수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TA 준비 착수" 한·중·일 공동선언문 채택

한중일 3국은 14일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 · 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분야에 50개 항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